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3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인천 고용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인터뷰 :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



I/D/I/소/식



2010 인천광역시 녹색
교통 정책토론회
우리 연구원(원장 홍종
일)이 주최하고, 인천광
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가 후...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2010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구과정
개최(3.28~4.17...

Zoom INcheon



시간이 머물러 있는
섬, 교동도
얼마전 '1박 2일'이라
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사진 속 골목을 찾아
가는 미...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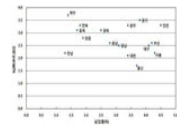
지역파트너십의 모범
사례, 아일랜드 코크
(Cork)시
오늘날 중앙정부가 주
도하는 정책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자 선진
각국에서는...

IDI연구



인천 고용구조의 특성
과 정책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인
천지역의 노동 수급
구조나 일자리의 질적
특성에 대...

인천지표



인천의 고용구조
경제활동인구는 생산
가능인구중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상태이지
만 취업할 의사...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과의 만남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3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고용에서 복지로, 선진화된 개념의 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할 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44호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과 구인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기업을 돕고자 개설해,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을 만나 사업내용과 그간의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인천지역의 고용전망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

Q 먼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센터의 설립 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그 여파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고자 작년 3월 2일 개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알선이고, 두 번째는 구직자 교육 및 취업 훈련을 들 수 있는데, 집단상담이나 취업에 필요한 일반 교양, 테크닉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이 된 후에도 체크를 해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지, 그만 두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의 문제인지 자신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보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취업지원 업무만이 아닌 맞춤형으로 교육도 시키고, 취업 후 모니터링까지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성과로는 짧은 시간에 정착시킨 일들도 많고 그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상용직 2천명이, 일용직은 9천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일용직 중에 새벽 5-7시 사이에 일을 찾아 나가는 건설 일용직 취업 업무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일자리 발굴팀이 있어서 일자리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업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인데, 건설노동자, 돌봄(취약 계층), 상용직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은 정례화 된 단계입니다. 더불어 매달 둘째 화요일, 2-5시에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인 소규모 취업박람회도 정착되었습니다. 구인처는 장소가 협소해서 7-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구인처에서 모집하는 요건을 구직자들에게 성실히 홍보해주고 있으며, 매달 200여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수적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심리상담, 이력서 쓰는 법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월 인천의 실업률이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데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우선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타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이 많다 보니 타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하다 보니 실업률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구직활동과 결합이 돼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고용률이 높다는 측면 또한 강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올해 일자리지원센터가 두 곳 더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적이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천의 일자리지원센터를 타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 지역을 들 수 있으며, 경기도는 유사한 일자리센터를 13개나 개설했고, 충청남도도 경상남도도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이 실질적으로 한 군데 열어서 상용, 일용직 포함 일만여명 정도를 취업시켰으므로, 두 곳을 더 열어 인천 전지역으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인천지역의 고용 사정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고 시나 센터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률도 높지만 실업률도 높다는 설명에 대해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업체들의 상황이 어렵고, 중소기업도 사양사업이 많아 가동이 안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어서 종합적인 중소기업대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첨단산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 건설일용직에서, 송도, 청라 등에 발생하는 많은 일자리를 인천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활성화시키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돌봄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고용창출과 제도적인 부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 문제, 나이가 교육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서 실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에는 노동부나 시에서 지원받는 기술훈련원 40개 정도가 유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용직을 체계적으로, 직종별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네트워크 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훈련생들이 실용적으로 취업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인천의 고용지원 서비스기관 중에 유료 소개소가 200개 정도 있는데,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업알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업체당 하루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취업시키고 있는 만큼 일자리 지원센터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리한 소개비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또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에 관한 문제가 산업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깊이 연구하면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주어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 설정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인발연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담 : 이권형(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44호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과 구인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기업을 돕고자 개설해,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인천종합 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을 만나 사업내용과 그간의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인천 지역의 고용전망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과의 만남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3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고용에서 복지로, 선진화된 개념의 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할 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44호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과 구인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기업을 돕고자 개설해,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을 만나 사업내용과 그간의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인천지역의 고용전망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

Q 먼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센터의 설립 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그 여파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고자 작년 3월 2일 개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알선이고, 두 번째는 구직자 교육 및 취업 훈련을 들 수 있는데, 집단상담이나 취업에 필요한 일반 교양, 테크닉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이 된 후에도 체크를 해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지, 그만 두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의 문제인지 자신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보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취업지원 업무만이 아닌 맞춤형으로 교육도 시키고, 취업 후 모니터링까지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성과로는 짧은 시간에 정착시킨 일들도 많고 그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상용직 2천명이, 일용직은 9천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일용직 중에 새벽 5-7시 사이에 일을 찾아 나가는 건설 일용직 취업 업무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일자리 발굴팀이 있어서 일자리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업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인데, 건설노동자, 돌봄(취약 계층), 상용직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은 정례화 된 단계입니다. 더불어 매달 둘째 화요일, 2-5시에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인 소규모 취업박람회도 정착되었습니다. 구인처는 장소가 협소해서 7-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구인처에서 모집하는 요건을 구직자들에게 성실히 홍보해주고 있으며, 매달 200여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수적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심리상담, 이력서 쓰는 법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월 인천의 실업률이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데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우선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타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이 많다 보니 타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하다 보니 실업률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구직활동과 결합이 돼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고용률이 높다는 측면 또한 강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올해 일자리지원센터가 두 곳 더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이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천의 일자리지원센터를 타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 지역을 들 수 있으며, 경기도는 유사한 일자리센터를 13개나 개설했고,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도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이 실질적으로 한 군데 열어서 상용, 일용직 포함 일만여명 정도를 취업시켰으므로, 두 곳을 더 열어 인천 전지역으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인천지역의 고용 사정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고 시나 센터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률도 높지만 실업률도 높다는 설명에 대해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업체들의 상황이 어렵고, 중소기업도 사양사업이 많아 가동이 안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어서 종합적인 중소기업대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첨단산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 건설일용직에서, 송도, 청라 등에 발생하는 많은 일자리를 인천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활성화시키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돌봄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고용창출과 제도적인 부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 문제, 나이가 교육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서 실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에는 노동부나 시에서 지원받는 기술훈련원 40개 정도가 유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용직을 체계적으로, 직종별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네트워크 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훈련생들이 실용적으로 취업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인천의 고용지원 서비스기관 중에 유료 소개소가 200개 정도 있는데,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업알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업체당 하루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취업시키고 있는 만큼 일자리 지원센터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리한 소개비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또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에 관한 문제가 산업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깊이 연구하면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주어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 설정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인발연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담 : 이권형(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44호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과 구인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기업을 돕고자 개설해,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인천종합 일자리지원센터 양재덕 센터장을 만나 사업내용과 그간의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인천 지역의 고용전망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3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2010 인천광역시 녹색교통 정책토론회

에너지후사대, '지역 녹색교통정책' 토론의 장
「2010 인천광역시 녹색교통 정책토론회」




우리 연구원(원장 홍종일)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광역시 녹색교통 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11일,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에 이어 인천광역시 녹색교통정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현실적인 제안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저탄소·녹색성장과 지역교통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저탄소·녹색성장과 교통:추진성과와 향후과제’, ‘그린카 보급에 대비한 지자체 정책방안’ 등 향후 인천 및 국내에 추진될 다양한 시책들을 소개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제시된 시책들이 ‘녹색교통’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인천광역시 발전에 적용 가능한 진일보한 정책들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연구원(원장 홍종일)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광역시 녹색교통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됐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3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행사] 2010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구과정 개최(3.28~4.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행사]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 지방협의체 개최(3.30~4.1):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동연구기관 워크숍 개최(3.31): 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새주소 체계와 연계된 도로안내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3.31):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BRT 설계지침 개선(안)' 공청회 개최(4.1):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2010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구과정 개최(3.28~4.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행사]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 지방협의체 개최(3.30~4.1):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동연구기관 워크숍 개최(3.31): 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새주소 체계와 연계된 도로안내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3.31):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BRT 설계지침 개선(안)' 공청회 개최(4.1):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0년 3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시간이 머물러 있는 섬, 교동도

도시경영연구실 조혜정 책임연구원

시간이 머물러 있는 섬, 교 동 도

얼마전 '1박 2일'이라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사진 속 골목을 찾아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다. 사진 속 배경은 마치 영화세트장을 연상케 하는 1960~70년대 골목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옛 골목의 정취가 살아있는 곳, 그곳은 바로 교동이라는 섬이다.

교동을 가기 위해서는 창후리 선착장에서 출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군인들의 검문을 받은 후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교동도 월선포 선착장에 다다른다. 교동은 동북으로는 개풍군이 8.5km, 서북으로는 연백군이 3.0km 떨어져 있는 민통선 지역이라 군인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2012년이 되면 강화본도와 교동도간 연륙교가 완공될 예정이라 섬으로서의 정취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배에서 내리면 섬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은 평야가 펼쳐진다. 교동은 강화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면(47.16km²)이지만 인구는 3,188명(남1,564명,여1,624명)이 살아가는 작은 섬이다.

교동은 한강을 따라 빗물에 떠내려 온 토사(土砂)가 섬을 이루게 되었고, 그 땅을 개간하여 만들어진 농토라서 땅이 비옥하여 교동쌀이 최상품으로 취급된다고 한다. 교동은 고려시대부터 왕족의 유배지로 유명했다. 고려 희종이 최충헌에 의해 유배되었으며, 충정왕, 우왕, 창왕이 교동으로 유배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연산군과 광해군을 비롯해 세종의 3남 안평대군, 선조의 첫째 서자 임해군, 인조의 동생 능창대군, 인조의 5남 송선군, 철종의 사촌 익평군, 흥선대원군의 손자 이준용 등이 교동도로 유배당했다가 풀려나거나 사사되었다.



교동향교 내 공자상

교동에는 역사적 흔적 외에도 꼭 한번 둘러보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대룡시장 골목이다. 마치 1960년대의 영화세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의 이곳은 얼마전 오락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월선포 선착장



교동평야



교동향교

교동은 역사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고려 충렬왕때 안향 선생이 원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자의 초상화를 들여와 봉안한 교동향교, 인조 7년 교동에 처음으로 영이 설치될 때 축조된 교동읍성, 무학대사, 지공선사가 공부했으며, 묵은 이색이 수양하고 글을 지었다는 목조건물인 화개사 등이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남녀 출입구가 따로 만들어진 교동교회, 조선시대 한증막(고구리, 봉소리, 서한리)등도 한번쯤 둘러볼 만한 곳이다. 한증막은 물이 내려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우수하다. 1960년대말까지 주민들이 사용했다고 하니 지금의 찜질방의 원조격이 아닐까 싶다.



교동읍성



교동교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룡시장은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만들어진 시장으로 교동에서 가장 변화한
골목이라고는 하지만 옛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골목을 다니다 보면,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가득 번진다.



어른들에게는 '그때 그 시절'의 아스라한 옛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즈넉한 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느리게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곳, 아스라한 추억을 여행할
수 있는 곳, 교동으로의 추억여행을 추천해본다.

얼마전 '1박 2일'이라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사진 속 골목을 찾아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다. 사진 속 배경은 마치 영화세트장을 연상케 하는 1960~70년
대 골목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옛 골목의 정취가 살아있는 곳, 그곳은 바로 교동이라
는 섬이다.



■ 지역 거버넌스와 일자리 창출

오늘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자 선진 각국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지역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지역발전협의회(CDB: City Development Board)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발전협의회는 2000년 상반기에 설립되었는데, 여기에는 34개 지역(주, 도시)이 가입해 있다. 이 기구는 모든 공공 서비스와 지역 발전 활동에 관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아일랜드는 영국 서북부, 유럽 서단에 있는 섬나라로서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고, 면적이 7만km²(한국의 70%) 정도로 인구 400만 명(2007년 기준)의 작은 국가지만 소프트웨어의 생산부문을 특화하는 전략을 추구하여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외자유치를 통해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지역거버넌스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례의 대표적인 예인 코크 시의 사례를 알아본다.

■ 코크(Cork)시의 지역파트너십

코크(Cork) 시는 아일랜드 제2의 도시로서 서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다. 전체 인구는 12만 3,000명(2007년 기준) 정도이다. 실업률은 4.5%, 경제성장률은 6%, 최저임금은 시간당 7.5유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의약품과 화학약품, 의료장비,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코크 시는 아일랜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코크 시의 지역발전협의회(CDB)는 유럽기금(European Fund)을 재원으로 지역의 경제개발과 취약계층 취업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발전협의회(CDB) 의장은 코크 시장이고 구성원은 시 국장급 6명, 구별 공동체 지도자 4명, 기업이 대표 2명, 중앙정부 코크지부 8명(보건복지부, 고용안정센터, 교육부, 관광부 등), 노사정 파트너(노조, 사용자, 지역NGO) 5명 등 모두 26명이며 한달에 두 번 회의가 개최된다. 다양한 민간그룹이 제안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접수한 후 적절한 여러 실무 소위원회에 배정하여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하고, 계획을 제안한 단체나 개인이 주도하여 사업을 집행케 한다. 지역개발, 소외그룹 참여, 계획 간의 중복을 피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이들 계획을 심의하고 기금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고용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지역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업고용기술센터(FAS)로, 이 조직은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결정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모니터링 그룹(City Monitoring Group: CMG)에서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에 따라 FAS는 구체적인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협의회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을 시에 보고를 하고, 시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한 지역파트너십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토대로 사회적 통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의 이해관계자 및

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 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약자, 아동, 전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여론 수렴활동을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이 지방정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관계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들 중심으로 실무그룹과 관련 지역단체 및 소규모의 그룹 등과의 네트워크 기반 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사점

아일랜드 코크 시의 지역발전협의회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정책 결정이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인 사회협약을 통해 고용정책의 일반적인 틀이 결정되지만, 코크 시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협의회에 소속된 실무자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도출되고 세부사항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자문기관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관련 실무그룹이다. 코크 시의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 누구나 관심 이슈나 정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내의 사회적 통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코크시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는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가 상이하므로 지역단위에서 지역파트너십을 기초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각 지역마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지자체와 시민단체, 경영진과 근로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파트너십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자 선진 각국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지역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지역발전협의회(CDB: City Development Board)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발전협의체는 2000년 상반기에 설립되었는데, 여기에는 34개 지역(주, 도시)이 가입해 있다. 이 기구는 모든 공공 서비스와 지역 발전 활동에 관한 기본 모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 고용구조의 특성과 정책방향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의 노동 수급 구조나 일자리의 질적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고용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중장기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 지표는 전국 평균수준이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률 지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인천의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수준보다는 높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그밖의 장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천은 이와 같이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률도 전국적으로 상위 수준에 있어 일자리 수급의 미스매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인천은 영세규모 사업체 비중이 전국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력부족률이 영세 사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수급간 미스매치도 인천의 영세사업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인천 거주 취업자들중 20% 이상이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인천 소재의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게 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일자리 수급간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순히 고용정보 전달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인천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근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일자리에 비해 인천의 일자리를 덜 선호하게 되고 이는 인력부족률의 상승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전국적인 평균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비중도 인천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로 근로여건이 정규직에 비해 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임. 10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도 인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정책 건의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한 창업 분위기의 확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마케팅, 유통, 홍보 등의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창업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단시간 근로를 장려하여 단시간 근로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을 확립하고 확산시켜나가면서 고용률을 제고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고용정책은 단순히 구직자의 취업 지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구직자 및 취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하는 데 두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적자원 개발은 평생학습 또는 사회학습망과 연계되어야 함.

○ 또한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정규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인력과 새로운 산업구조 및 신성장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간의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포함되어야 함. 다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적자원의 수요와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인적자원의 공급이 서로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사업 경험과 인적 역량을 토대로 인턴십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청년층에 특화된 종합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민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임.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의 노동 수급 구조나 일자리의 질적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고용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중장기 고용 전략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3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고용구조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중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상태이지만 취업을 의사가 있는 인구로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인천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기준 135만 5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8%이다. 이는 전국 평균수준인 60.8% 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취업자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고용률이다. 고용률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그에 따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으며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시의 고용률은 큰 변동 없이 59%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용률이 가장 낮은 부산과는 5% 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과 함께 인천시의 실업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8년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4.6%로 전년도보다 0.7% 포인트 상승하였다.

〈표〉 인천시 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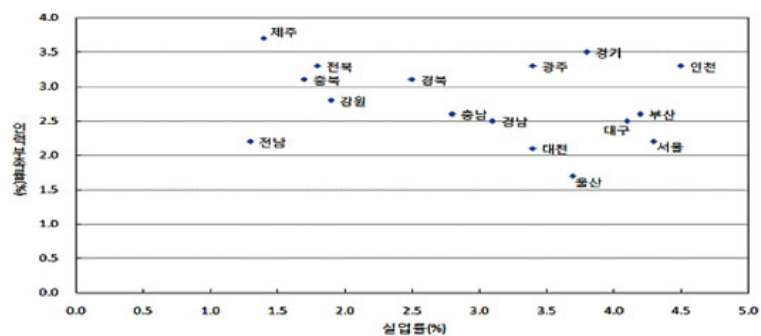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활동인구	1,163	1,195	1,227	1,233	1,249	1,257	1,285	1,311	1,317	1,355
경제활동참가율	61.5	62.0	62.6	61.8	61.9	61.5	61.8	62.0	61.4	61.8
취업자	1,100	1,139	1,178	1,179	1,192	1,200	1,228	1,258	1,265	1,293
고용률	58.1	59.1	60.1	59.1	59.1	58.7	59.1	59.5	59.0	59.0
실업자	63	56	49	54	57	57	57	54	52	62
실업률	5.4	4.7	4.0	4.4	4.5	4.6	4.4	4.1	3.9	4.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인천의 일자리 수급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은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계속해서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인천은 실업률이 높은 데다 인력부족률도 높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과 인력부족률간의 상관관계를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업률이 높을 경우 인력부족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 실업률과 인력부족률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지역별 실업률과 인력부족률 비교(2009 하반기)



자료: 노동부, 산업계 고용동향 특별조사.

주: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인력부족률은 현재 종사자수에 대한 부속인원의 비중임.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중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상태이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인구로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인천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기준 135만 5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8%이다. 이는 전국 평균수준인 60.8% 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